

Directors Cut

디렉터스 컷

[ver.02]

screenplay by. 김은혜 (Renee Kim)

* key point :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블랙 코미디 스릴러.

#S.1 펜션 로비 / 낮(혹은 밤)

삼삼오오, 여행가방을 끌고 모인 사람들이 보인다.

한 쪽에는 원어민 스터디 모임(외국인남자 1명 + 한국 여자2명), 다른 쪽에는 풋풋한 20대 초반 커플이, 끝 쪽에는 가족모임(할아버지,남편,아내,10살 아들)이 보인다. 체크인인 알바생 1명이 도맡는다.

아저씨 :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사람도 얼마 없고 ...

아줌마 : 그니까요~! 얼마만의 휴가야.

알바생 : 김재명씨 가족분들 맞나요?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잠시 뒤, 한 남자가 로비에 들어선다.

평범한 외모의 남자는, 비어있는 자리를 스캔 한 후, 배낭을 의자에 내려놓는다.

안내 데스크 알바가 잠시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취한다.

남자는 자리에 앉아 영화 관련 전공 서적들과 노트북을 꺼낸다.)

NA : 어느 한적한 오후의 펜션.

한 남자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북적이는 도시를 벗어나, 한가로이 시나리오를 완성할 계획이다.

대화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허공을 응시하며, 의아해한다.

NA : 전공 서적들을 보니, 영화감독이 꿈인 청년이다. 노트북에는 그의 최근 기획작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가 커다랗게 쓰여있다. 자세히 한 번 읽어볼까. 첫 문장은 이렇다.

[휴가차 펜션을 찾은 사람들. 여유로운 휴가를 꿈꾸지만, 그들 사이 살인자가 있음을 곧 깨닫는다.]

사람들이 일제히 감독을 쳐다본다. 감독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모두 자신에게 주목하니 당황하는 눈치다.

감독 :음? 이거 뭐죠? 어디서.. 들리는거지..

초딩 : 엄마, 저 아저씨가 살인자야?

아줌마 : 췌! 아니야.. 저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예요! 애가 무서워하잖아요!

NA : 아저씨는 당황한 알바생에게 다짜고짜 성을 낸다.

아저씨 : 지금 무슨 이벤트인진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당황하잖아요!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바생 : 제가 오늘.. 첫 알바 날이라.. 스피커 문제인가, 스피커 확인해볼게요 ...

NA: 알바생은 스피커 코드를 뽑는다. 스피커 문제가 아니다.

알바생 : 스피커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그냥... 허공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네요...?

NA: 펜션안의 사람들은 다들 당황한 듯, 서로의 눈치를 살핀다.

호시탐탐 다음 희생자를 조용히 스캔하던 살인자는, 목표물을 발견한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이 곳을 어떻게 피바다로 만들일지 조용히 고심한다. 이 곳을 벗어나려는 사람은 가차 없이 죽는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다시 감독에게 쏠린다.)

감독 : 여러분? 하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

NA: 그 때,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 한 외국인이 묻는다.

외국인 남자 : What...?..What's happening?

NA : 그는 4년째 영어 과외를 하며 이리 저리 여학생들을 건드리는 걸 좋아한다. 함께 온 여학생 중 한 명과는 이미 잠을 잤다. 함께 온 다른 학생과도 합쳐 스리섬을 꿈꾸지만, 꿈은 꿈일 뿐이다.

스터디 모임녀1 : Voice telling, You! 변태 ! (문법 어눌)

스터디 모임녀2 : You have sex her and you sex me!?!? today??? (문법 어눌)

NA :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오늘 섹스를 하지 못하고 죽는다.

스터디 모임녀1 : Voice say You DIE !! (문법 어눌)

NA : 그리고, 그 옆 여학생도 죽는다.

스터디 모임녀1 : OMG! I DIE ????

스터디 모임녀2 : 야, 오바 그만해. 시끄러워. 너 그리고, 애랑 잤냐? .. 너, 나중에 따로 나랑

얘기 좀 얘기하자..

할아버지 : 에? 죽는다니, 무슨 일이라? 애비야.

아저씨 : 이 목소리 누구야!? 얼굴을 공개하세요! 그렇게 숨어있지만 말고!

감독 : 여러분! 아무도 안 죽어요! 다들 진정해요.

NA : 라고 감독이, 펜션안의 사람들을 안심시키지만,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시나리오에 그렇게 쓰여있다.

할아버지 : 에?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거라고?

감독 : 여러분 아니라구요! 저 멍청한 목소리를 왜 믿어요! 자 보세요. 제 시나리오 아직 완성 덜 되었죠? 시나리오 상에서도 아무도 안 죽어요. 자, 보세요!

할아버지 : 거래..아무도 안죽네. 펜션에 모였다고만 써있네.

감독 : 네! 딱 여기까지만 썼어요. 아무도 안 죽는대구요!

NA : 라고, 감독은 다시 사람들을 안심시키지만, 지금 보여준건 시나리오 7고다. 이전 시나리오 1고부터 6고까지의 설정에서는 - 펜션안의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

남자친구 : 야, 뭐 하는거야..?

여자친구 : 썩! 경찰 부를라고!

NA :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급히 끄며 말린다.

(핸드폰 푹 ...)

여자친구 : 미쳤어?

남자친구 : 야, 경찰 부르지마...영화 안봤어? 경찰 부르는 즉시 사람 죽는다고!! 그리고 목소리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있어!

아줌마 : 아니, 저기 뭘 그리 속닥 속닥 거려요? 경찰을 왜 못 부르게해? 이 사람들 수상하네???

여자친구 :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줌마 : 이상하잖아. 경찰 빨리 불러요. 뭐하자는 거야 정말.

남자친구 : 아주머니! 스릴러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경찰 부르면 다 죽는대구요!!

아줌마 : 아니, 청년. 청년이 살인자예요? 특하면 사람이 죽는다니! 어디서, 못 돼 먹은 말을 입에 담는거야!

남자친구 : 목소리가 다 죽는데잖아요!!

감독 : 자, 다들! 진정 좀 하세요! 이러다 진짜 살인나겠어요!!!!

아줌마 : 그러고보니, 이 아저씨가 제일 이상하네. 아저씨가 저 목소리에요!!!??

NA : 다들, 서로 의심하고 험뜯느라 정신없는 사이, 알바생이 사라진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남자친구 : 어? 어디 갔지?

아줌마 : 아니, 아까 여기 있었는데 ... 진짜 알바생 어디 간거예요!? 나가는거 아무도 못 봤어요??

NA : 뒷문이 닫혀있음을 아저씨가 알아차린다.

아저씨 : 여기 잠겼어!

NA : 그 때, 유리창 너머 열쇠를 흔들고있는 알바생을 초딩이 발견한다.

초딩 : 아빠, 저기!!

아저씨 : 문 열어주세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알바생 :

아줌마 : 아니, 청년. 그렇게 아니라 우선 문 좀 열어줘요. 그래야, 우리가 탈출이라도 하지!

감독 : 아니, 여러분..탈출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냥, 열쇠 수리공을 불러요.

알바생 : ...

NA :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못 하겠다는 외국인이 나선다.

외국인 : What's going on?

(문을 세차게 흔들어본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외국인 : Wha.. What the Fuck? Hey! Let us out!

감독 : Come down. 워워워~ (외국인 몸에 손을 댄다.)

외국인 : Hey, Not Cool! Let us out! You mother fucker.. (문을 다시 세차게 발로 차본다. 열리지 않는다. 주변 의자를 주워 들어올린다.)

알바생 : !!!!

감독 : 진정해요. (다시 외국인 남자에게 손을 댄다.)

외국인 : Don't touch me. I'm fucking serious.

감독 : 컴 다운 맨!! (감독은 외국인의 의자를 뺏는다.)

외국인 : I said don't touch me!!

(외국인은 감독을 바닥에 세차게 내팽개친다.)

스터디 모임녀1 : 마이크! 하지만, Don't !!! (스테디 모임녀1,2 + 남자친구 뜯어 말린다.)

NA : 이 틈을 타서, 펜션을 완전히 벗어나려는 알바생이 보인다. 이 곳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제일 먼저 죽게 될 것이다.

감독: 죽..죽는다고?

알바생 : 하하하. 다들 정말 정신병자들이군. 하... 처음부터 여기 오지 말았어야해 시발!! 알바생이 우습냐!!? 아무리 문을 두들겨봤자, 저거 방탄유리야!! 내가 경찰 데려올 때 까지... 다들 거기 가만히 있어.

NA : 그 때, 알바생은 손에 쥔 열쇠를 딸랑 딸랑 흔든다.

여자친구 : 알바생!! 가지마요. 죽는데요!!

남자친구 : 죽는다고!!

알바생 : 뭐, 뭐라구요? ...들리지 않아요~~

NA : 안타깝지만, 알바생은 내 목소리가 진짜 들리지 않는다.

스터디녀2 : 멍청아! 죽는다고!!!! (손가락으로 목을 긁는 제스처를 취한다.)

NA : 그 때, 알바생은 손에 쥔 열쇠를 황급히 입속에 삼킨다.

카페 안의 사람들 :!!

알바생 : 하, 암튼 경찰 불러올테니..다들 기다리고 있..케....테....케..엑ček..

(몇 발자국 벗어나지 못하고, 알바생 질식해 죽는다.)

NA : 알바생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 11명이던 사람들이 곧 열로 줄었다.

여자친구 : 죽....죽은거야?...진짜..죽은거야?

NA: 남자는 죽었다.

남자친구 : 아, 시발. 저 목소리 좀 그만 닥쳐!!!

NA : 모두 충격이 가지지 않은 틈을 타, 살인자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다음 타겟을 노린다. 다음 타겟은 감독에게 묻자.

(사람들이 일제히 감독을 주시한다.)

감독 : 뭐? 나에게? ..하.. 내가 뭘 안다구요.. 여러분. 저 정말 몰라요.

NA : 감독은 모른다고 거짓말한다.

감독 : 아니, 정말 모르겠다고!! 내 시나리오 읽어봤으면 알 거 아니야!! 설정이 다 다르다고!!

아저씨 : 이 사람 수상하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걸 보니, 이 사람이 살인자 아니야?

NA : 평상시 냉철한 태도로 일관하는게 특기인 유부남 김재명씨는, 감독을 의심한다.

이지적이고 똑부러지는 느낌이 강해, 많은 사람들이 설득 당한다.

아저씨 : 이 사람이 제일 수상하잖아! 안그래요?

일행들 : 끄덕 끄덕.

NA : 그런데, 감독을 의심하기 전에, 김씨가 5년전에 뺑소니사고를 내고 그대로 튀어버린 양심 없는 놈임을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종로구 창신동 박씨가 죽었다.

아저씨 : ...

아줌마 : 아니, 지금 뭐라는거예요! 목소리 양반! 뺑소니라니!?

여자친구 : ...아..아저씨... 아저씨가 우리 아빠 죽였어요!?!?!

아저씨 :

아줌마 : 아, 저기. 누가 누굴 죽였다고 그래, 학생. 그렇게 함부로 말을..

여자친구 : 아저씨! 아저씨가 5년전에 종로구 창신동 박상식- 우리 아빠를 죽였냐구요!!

아줌마 : 어디서...!! 연성을 높여!! ...여보. 아니지??..

아저씨 : ...

아줌마 : 여보!

아저씨 : ..학생..그건...사고..였어... 내..내가..

NA : 하나 둘 씩 추악한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놀라운건,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감독 : 아, 여러분 잠시만요! 목소리도...잠시, 잠시만요!

NA : 뜬금없이 감독이 끼어든다. 역시 그가 살인범인가?

감독 : 목소리 췌! 아니, 우선 전 절대 아니구요. 내가 아니란걸 증명하지요. 자, 지금 이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줄 알고 있지요? 우선, 저 아저씨가 뺑소니 범이라고 칩시다. 지금 모두 알았으니, 경찰 오면 자수하고 넘기면 되구요, 그리고 저 목소리는! 가짜예요.

NA :

감독 : 그니까, 저 허공의 남자 목소리. 내가 저 목소리가 거짓이라는걸 증명할게요.

자, 저 목소리는 우리가 모두 죽길 원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가만히, 경찰이 올 때 까지 가만히 함께 앉아 있어 봅시다. 아무도 자리를 뜨면 안되구요..

할아버지 :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감독 : 경찰을 부르고 가만히 있자구요. 얼마나 쉽고 편해요. 원을 만듭시다. 모두 여기 앉아요.

NA : 모두들 감독이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차선책은 딱히들 생각나지 않았다.

스터디녀2 : 가장 쉽고 명쾌하긴하다. 그치?

스터디녀1 : ..그..그러네..

감독 : 그럼, 이제 경찰에 전화겁시다. 제가 걸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전화를 다 한 곳에 모아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저 봉지에 섞어봅시다.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여기서 전화를 뽑으세요. 그리고 본인 전화면, 다시 전화기를 넣고 다른 사람의 전화를 뽑아서 경찰에 신고합시다. 자, 모두..가위 바위...보!

초딩 : 앓싸!! 이겼다.

여자친구 : 재 전화걸기 너무 어린거 아니에요..??? He toooo young!!

외국인 : ...He 'IS' too Young. I told you a hundred times! Check your Fucking grammar! I mean what's the whole point! I don't give a shit who's gonna call.

감독 : 그럼 전화기만 초딩이 뽑고, 전화는 그럼 어머니가 대타로 해주세요.

NA : 초딩은 처음에는 외국인의 핸드폰을 집었다가, 맘에 안들었는지 새로운 폰을 집었고, 그건 감독의 전화기였다. 그러다 잠시, 내일부터 방학인데 오늘 죽으면 더 이상 롤(게임)을 못하는데, 어찌지 하는 불안한 생각을 하며, 새로운 전화를 뽑았다. 그건 결국 스티디녀2의 전화기였다.

초딩 : 이거..아줌마꺼죠..? (전화기를 허공에 보여주며)

스티디녀2 : 저거 내꺼 맞아! 근데, 아줌마라니! 애가 버릇없네...? 그리고, 목소리야! 넌 왜 자꾸 날 스티디녀2로 부르는거지? 완전 짜증나! 내 이름은 김하나라고!! 그리고, 어차피 목소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안다면, 우리가 구지 제비뽑기하고 생쇼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안그래요?

NA : 스티디녀2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똑똑한 생각을 내뱉었다.

스티디녀2 : 그래, 나 겐보기보다 똑똑해! .. 그리고.. 김하나라고!!!

NA : 스티디녀2가 짜증을 낸다.

스티디녀2 :김 하나 라구요...

NA : 라고 김하나 - 스티디녀2가 승질낸다.

아줌마 : 뭐야! 신호가 안잡히네..

아저씨 : 그럼, 다른 전화로 걸어봐.

여자친구 : 요것도 안돼요. 이것도...다 멍통이에요!

(모두 자기 앞의 핸드폰 점검)

NA : 그 때, 스티디녀2는 스티디녀1의 핸드폰에서 의문의 사진 한 장을 우연치 않게 찾아낸다.

스티디녀1 : 너 왜 내 폰 함부로 봐?

스티디녀2 : ...이거 뭐냐? 너, 내 구남친도 만났냐...? (스티디녀2와 어떤 남자의 사진)

(사람들 스티디녀들에게 일제히 시선 집중. 눈치..)

스티디녀1 :야, 어차피..개는 너가 지겹다고 한 놈이야. 뭘, 그런걸로 흥분하니?

스티디녀2 : 너.. 내가 힘들 때, 위로한답시고.... 중간에 애 가로챘거나??

스티디녀1 : 지가 순순히 내가 좋다고 오던데? 너가 너무 인위적이래! 촉감이..

스티디녀2 : 어디서 성형 나보다 존나 쳐한 인조년이 나랑 비교질이야???

NA : 모두의 예상대로 스티디녀1과 스티디녀2는 서로 죽일 듯이 엉겨붙었다. 정글에서 벌이는 암사자의 혈투를 보는 듯하다.

감독 : 그만, 그만하세요! 말려요 좀!

스티디녀2 : 너, 그래서 내가 영어쌤 좋단니까 니가 먼저 엉겨붙었냐? 이 창녀야?

스티디녀1 : 니 뼈쩍 꿇은 몸매로 붙어봤자, 아무 느낌 안날걸? 니 몸보다 그래도 내 실리콘이 낫다!

(전체 화면이 고속촬영으로 변하며, 여자들끼리의 혈투가 시작된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과장된 섹시함을 내뿜는다. 가슴이 출렁출렁 거린다. 여자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린다. 뜬금없이 윈크도 한다. 이를 지켜보던 아줌마가 아들과 남편의 눈을 가린다.)

외국인 : Dude. I don't know why but I love THIS!! GIRLS FIGHT!!! YEAH!!

남자친구 : Yeah, man. Pretty Hot. (과자를 외국인과 나눠 먹는다.)

NA : 그 때 스티디녀2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송곳 드라이버를 발견한다.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스티디녀2 : 죽어!!!!!!!!!!!!!!!!!!!!!!!!!!!!

(스티디녀2는 송곳 드라이버를 머리 위로 바짝 든다.)

NA : 그 때, 감독이 달려와 스티디녀2의 드라이버를 뺏고 밀쳐낸다. 스티디녀2는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갑자기 로맨틱한 음악으로 전환)

스티디녀1 : 나를 ..구해줬군요...

감독 : 아..

스터디녀1 : 탈출하면, 같이 영화보러가요 ...

할아버지 : 저기, 청년들. 이 여자 단단히 묶는 거 좀 도와줘.

NA : 할아버지는 여행가방을 열더니, 청테이프와 밧줄, 입마개를 준비한다. 그런데 왜 여행가방에 들어있을까 의심이 간다.

남자친구 : 할아버지, 그런걸 왜 여행가방에 챙겨 와요?

할아버지 : ...그건..그건..다.. 용도가 있으니,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경우를 위해. 미리 가지고 다녀야지! 난 야생동물 사냥꾼이오!

NA : 할아버지의 말이 얼토당토않지만, 이런 이상한 상황에 요긴하게 밧줄과 청테이프, 입마개가 쓰였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사람들은 되려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남자친구 : 그러네. 미리 미리 준비하는거, 좋네.

여자친구 : 그래, 너도 저런건 미리 좀 챙겨서 다녀. 할아버지 짱이에요!

할아버지 : 그래.. 이런 곳에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다들 각자 호신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챙겨요들. 자, 어서. 요거는 이렇게 다루고..(어찌구 저찌구..)

NA : 할아버지의 가방 속에서 각종 공구들이 나온다. 톱, 칼, 밧줄, 권총까지 나오는 신비한 가방이다. 다들 어서 무장하길 바란다. 아직 살인범은 이 곳에 남아있다!

(사람들 머뭇거리다, 할아버지의 공구함을 다 털어버린다.)

감독 : 아니, 여러분 잠시만요.. 저, 저기 총기 내려 놓으시구요!

저기요? 아가씨... 그거 톱도 내려놓으세요.. 지금 다들 무장을 하시면 어떻게요!

여자친구 : 지..지금, 아직도 살인범이 있다잖아요!

감독 : 아..그럴수록 여러분.. 무장을 하면 안되죠..다들..진정들 하시고.....

저, 아버님? 아버님... 밧줄을 어디 쓰실라고 ..네네. 내려 놓으시구요... 그리고, 언니..? 언니도.. 그거 뽀족하니까 내려놓으세요. 손 다쳐요..

자... 모두 심호흡을 합시다. 저.. 초딩님? .. 그거, 장난감 아니니 나한테 넘기고..

(초딩 총을 감독에게 넘긴다.)

이 목소리가 우리 모두가 서로 죽고 죽이길 바라고 있다구요! 목소리가 이기게 뉘들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야죠. 새해도 맞이해야죠 .. 선량한 힘이 악을 물리친다고 증명해야죠! 자, 우리 모두 손잡고 무사히 나가야죠!!

NA : 감독의 인간적인 연설에 다들 크게 감동 한다. 슬슬 하나 둘 무기를 내려놓는다.

여자친구 : 맞아, 오빠 .. 저 감독 말이 맞아! 이 활과 화살이 무슨 소용이겠어! 내려놓자..

NA : 그런데, 다들 한 가지 사실을 모른다. 감독의 여동생이 몇 해 전에 자살을 하였는데, 그 원인에는 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다. 군대에서 갓 제대했던 저 놈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에게 술을 진탕 매겨 온갖 변태적인 행위와 폭력으로 집단 강간을 행했고, 결국 범인도 찾지 못하고 동생은 고통을 잊지 못 하여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사람들 일제히 감독과 남자친구 주시. 모두 얼어붙는다.)

감독 : 너..너..였냐? ... 이 씨발 ... 좆같은 새끼가..너였..냐?

(감독이 총기를 남자친구에게 겨눈다.)

남자친구 : ...

여자친구 : ... 오빠.. 무슨 말이야 저게.... 오빠! 말 좀 해봐!

NA : 중요한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다! 외국인은 미국에서 아동소아성애자로 수배중에 놓여있다. 어머니는 아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주머니는 손에 쥔 권총을 장전하여, 외국인을 겨냥한다. 남편도 외국인을 향해 권총을 장전한다. 할아버지는 이리 저리 어디를 썩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할아버지 : 응? ..저 외국인이 뭐 어쨌다구? 귀가 잘 안들려..

아줌마 : 너 우리 아들...건들기만 해봐 넌..아주 내 손에...

NA: 할아버지는 그냥 저 외국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면 됩니다.

(총기를 장전하는 소리에, 여자친구는 화살을 아저씨에게 겨눈다.)

여자친구 : 아저씨, 저 아직 아저씨 잊지 않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무기를 서로에게 겨눈다.)

감독 : 어서, 니 드러운 입으로 말해봐! 너가 그랬냐고!

아줌마 : 너, 이 노란머리 새끼야. 완전 변태놈이네..우리 애를 어떻게 할라는거야??

할아버지 : 이 년이 미쳤나! 어디서 남자를 겨눠!!

- 당!

(할아버지가 총구를 여자친구에게 겨누자, 사람들은 서로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른다. 모텔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다.)

NA : 그렇게, 모텔안은 피바다로 흥건해졌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영화 촬영장의 감독 : And...CUT! 오케이! 연기 좋았어요.. 아, 그런데..이거 한번만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촬영장 사람들 기대했다가 실망)

조감독 : 저..감독님, 오늘은 한 번 더 가긴 무리고..내일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페이도 걸려있고 ...

감독 : 아, 그래? ..그래. 시마이하자.

초딩 : 아, 끈적끈적해 짜증나... 매니저 누나!! 몇 번을 더 해야 하는거야.. 피곤하단 말이야..

매니저 : 어.. 많이 피곤하지?

아줌마 : 아니, 이거 도대체 몇 번을 가는 거야...

조감독 : 아,, 배우님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cut to

#S.2 세트장 / 밤

사람들이 떠나고, 마지막 인사를 감독과 조감독이 나눈다.

조감독 : 예. 배우님 내일 뵙게요.

아저씨 :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독님! 내일 뵙게요.

감독 : 네. 편히 쉬세요.

조감독 : 감독님, 그럼 여기 계시다 갈거예요?

감독 : 응응.. 고민을 좀 더 하고 갈 장면이 있어서.. 먼저 퇴근해. 내일 보자구!

조감독 :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세트장에 홀로 남겨진 감독.

갑자기 세트장의 불이 전부 꺼지고, 감독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다.

감독 : 누구야?

NA : 모두가 퇴근하고 세트장에 홀로 남겨진 감독.

감독 : ...누..누구. 진언이니? 장난치지 말고, 내려와.

NA :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세트장에는 감독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드디어, 살인자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감독 : ??!!!!!!!?!?!?!?

- The End -

